

연중 제26주일

기도서 444 면(A해)

제1독서: 에 제 18, 25-28

제2독서: 필 립 2, 1-11

복 음: 마 태 21, 28-32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강론



속 빠지신 예수님

김진소 신부

인생을 운 좋게 살아도 100년이던가. 천수를 못하고 요절한 사람에 비한다면 질려나는 세월이다. 하지만 장구한 세월에서 보면 승승 한대접 훌훌 마셔버린 정도의 세월이다. 생각하면 허전한 세상 어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무덤에서 순수한 꽃 한송이 받을 인간이 될까. 하늘에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들여다 보면 인기와 권위, 처세술에 신열(身熱)내는 세상인데. 오늘 제 2 독서와 복음에서 보면 모두가 부질없는 생각이다.

세상에 오신 예수의 마음은 우리의 기대와는 엉뚱하다. 왕이신 분이 친한 종의 신분을 선택하셨다. 그분의 삶의 표상은 문자로 자기비하(自己卑下)라던가. 필부의 말로 “표시없는 보통사람” “아무 치장 없는 백판(白板)” 하느님의 위엄과 권위를 비우신 속 빠진 하느님이 되셨다는 게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담과 하와가 허세를 부리려다 폐세(敗世) 망신 하였으니 그분은 허세없이 오셔야 했다. 그게 인간 본성을 회복하는 길이었다.

공자는 “썩은 나무에는 조각하지 못하고 썩은 흙담은 흠손질을 할 수 없다”고 일렀다. 순수하지 못하고 진실한 바탕이 없는 마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당장은 어리석어 보여도 역사는 냉엄하다. 사람의 언행이 언제까지 허위와 가식과 위선으로 위장될 수는 없다. 그 사람의 말씨가 성인같고 태도가 공손하고 표정이 천사같고 행동이 자신이 같고 능력이 배산을 옮긴다고 하자. 그리고 처세술이 뛰어나다고 하자.

그러나 사리사욕과 인기와 공명심으로 위장된 욕심은 누군가 들여다 보는 눈이 있다. 그것이 역사의 눈이요 하느님의 눈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가 말씀하신 구원의 대상은 누구인가. 국민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요 한 걸부끄러움이 없이 “내노라”하는 도덕인, 대사제들과 원로들이 아니었다. 절제같은 인간, 세리와 창녀였다. 구원의 대상, 예수가 바라는 인간은 자기 도취와 자기 변명끼리에 사는 인간이 아니었다. 순수하고 진실해 보려는 간절한 노력과 기원으로 사는 풀잎같은 인간들이었다.

썩은 나무 썩은 흙같은 이기심, 위선 가식의 복장(腹臟)은 패망하고 만다.

하느님의 인간활동은 남의 이목을 위한 사업끼리, 처세술에 있지 않다. 회개는 타산적인 뉘우침이 아니다. 공산 간첩이 민주시민으로 전향(轉向)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헛된 생각, 욕심과 허세에 가득찬 것은 인류의 원조(原祖)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언제나 헛된 속것을 비워야 산다.

(교회사 연구소)



시민 강좌

지난 화요일에 전주 중앙성당에서는 「오늘의 언론,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시민강좌가 열렸다. 성당을 꽉 메운 젊은이들의 진지한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갈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도 남았다.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알 권리」와 「알릴 자유」를 말한다. 이는 기본적 인권으로서 보장하는 전통적인 자유의 하나다. 그러기에 언론의 막중한 사명을 일러 “신문은 사회의 목탁(木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책임과 더불어 정확과 공정과 진실의 보장을 요구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언론에 대해 불신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참으로 비극이고 우리의 내일을 어둡게 하는 징표임에 틀림없다.

자유당 정권을 우리는 독재정권이라고 불렀다. 그때도 그때에는 언론이 활발하게 제 구실을 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알 것을 알고, 그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내세워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진실을 밝히기를 꺼려할 때, 우리는 언론을 불신하기 시작했고 이 사기를 유비(流言蜚語) 통신이 난무함을 보았다. 이는 언론이 시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즘 언론들은 프로 권투나 프로 야구가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서술이 퍼렇게 꾸짖고 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언론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우민화(愚民化) 작업을 거둬고 있지 않은 지를 자성해야 한다. 정치나 종교나 교육, 누구라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백성들 뿐만 아니라 돌들도 일어나 소리칠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의 기쁜 소식, 시민강좌는 더욱 알차게 꾸며져야 한다.

숲 정 이 산책

한국성인탄생경축대회
1984. 9. 23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
:

□ 노동 관계법 개정 서명운동

노동자의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II)

4. 행정관청이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
 노동조합법 제32조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해산을 명하거나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을 변경, 취소할 권한이 있고(제34조), 총회의 결의를 변경, 취소할 권한이 있으며(제21조) 노동조합의 규약을 취소, 변경할 수 있다(제16조). 또한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언제나 검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0조).

행정관청이 노동조합과 그 활동에 개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법령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판단과 결정이 행정관청의 자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러므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이 박탈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은 노사간의 대화에 의해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고, 행정관청의 감독은 최소한의 범위내에 그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5. 부당 노동행위는 엄벌되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39조에서는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당 노동행위가 날로 늘어나고 노골화 되어가고 있다. 1982년도에 발생한 부당 노동행위 사례를 성격별로 분류하면 노동조합 운영에의 지배, 개입이 8건, 신규조직 결성방해가 11건(이중에 8건은 완전 와해되었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사용자는 노동자를 부당해고, 납치, 감금, 폭행하거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구체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가 공정성을 잃고 사용자를 일방적으로 두둔하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은 더해 갈 뿐이다. 그러므로 부당 노동행위 방지 장치로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부당 노동행위로부터 노동조합을 적극 보호하여 실질적으로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계속)

알 린

노동관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서명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가까운 성당에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서명한 용지를 가지고 계신 단체나 개인은 천주교 전주교구청내 정의평화위원회의 사무실(사무국)로 10월 5일까지 인편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4. 9. 30.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성녀 소화 데레사

성녀 소화 데레사는 1873년 프랑스의 「아라손」에서 태어났다. 15살의 어린 나이에 「리치외」의 가르멜수녀원에 들어간 성녀는 완덕의 산 절정에 하루바빠 오르고 싶은 애절한 소망을 품고 있었다.

성녀는 먼저 성인들의 행적과 말씀 안에 사랑의 산길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어린이와 어린이 비슷한 사람의 차지"(마르코 10, 14)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파고들어, 그 소박한 생활을 배워 익힘으로써만, 오묘한 평화를 얻었고 애끓는 희망을 채울 수가 있었다.

어떤 친한 일이라도 즐거이 행하며 자신을 완전히 극복하는 극기의 실천에 전심했던 성녀는 하느님을 열애하고 또다른 사람도 뜨겁게 사랑하며 모든 영혼을 구하려는 열에 불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신부들을 위하여, 특히 전교지방에서 전교하는 전교신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오랜 증병으로 병석에 누워있으면서 당하는 형언키 어려운 고통을 한 마디 불평없이 참아 견디고 머나먼 지방에서 전교하는 신부들을 위해서 바쳤다.

1897년 9월, 24세의 젊은 나이로 선종하신 성녀는 별로 세계 역사상에 남을만한 대사업울 이룩한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을 열애하는 마음에서 매일 매일 자기의 본분, 더구나 사소한 일까지 빈틈없이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1925년 성녀품에 올랐고 포교사업의 수호자로 공경을 받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다.

성녀의 축일은 10월 1일이며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작은 길」이라도 하느님 대전에 위대한 가치가 있음을 성녀의 생애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영화 「소명」 안내

교구 홍보국에서는 200주년 기념영화 「소명」 필름을 인수하였다. 이 영화는 아직 전주지방에서 상영되지 않은 영화로 영화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본당을 순회하여 상영토록 하였다.

한국 천주교회 창립의 주역인물인 이벽 요한세자의 생애를 영화화한 「소명」은 수난의 차원을 넘어선 사랑과 평등의 진리를 묘파한 대하드라마이다.

이벽 성조에 대한 사학적인 비판이 없지 않지만 이 영화를 통하여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 신앙을 키워왔는지 생생하게 느끼게 할 것이다.

*영화상영료(교통비 포함)

도시본당(전주, 군산, 이리, 정주, 남원) 8만원
 그의 본당 4만원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씨스텔의
 현상 인화기 신설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미영의(투리포니아)

각종털실 · 동양매듭
 등공예 · 수예품 일절
코아털실
 코아백화점 옆
 가게: 전주시 서노송동
 686-12
 자택: 전주시 전미동661
 유 옥 희(글라라)

결혼, 아홉, 회갑, 2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 60주년, 70주년, 80주년, 90주년, 100주년 기념
 VTR 특수촬영전문·레이프필름 레코드 LASER DISC 총판
 ·대우전자 비디오 테이프 특약점 (각종 성서 테이프 및 교육용 테이프)
영진 비디오 음악사
 (전주백화점↔객사 중간) 중앙동 3가 12-6
 전화 2-4094 (야간) 74-3659

□ 성지 개발 사업에 함께 참여합시다

지난 20일 오후 치명자산에서 성 이 명서 묘역 조성 기공식이 주교님의 주례로 여러 신부님들과 교우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행되었다. 이로써 교구 성지 개발 사업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늦어졌으나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단계에 들어서게 된 것이며 계속해서 현안 사업들이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가 뒤따라야 한다.

본 교구가 추진중인 현안 성지 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성 이 명서의 묘역 조성 : 치명자산(중마위)에 있는 동정부부 유효한과 이루갈다와 그 가족 묘소의 성역 확장과 함께 병인년 순교 성인 이 명서의 묘 조성
 2. 숲정이 치명터 성역화 : 전주지방 천주교 신자들의 사형장이며 6분의 성인이 병인년에 치명한 현장의 성역 조성 사업
 3. 고산 천호 순교 성인 및 무명 순교자 묘역 성역화 : 3분의 성인과 10분의 무명 순교자가 묻힌 묘역의 조성 및 주차장 조성
 4. 피정의 집 건립 : 치명자산 밑에 순례오는 신자들을 위한 피정의 집 건립
- ☆ 감사합니다 : 지난주 성금에 참여하신 분들
- 대구교구 내당동본당(주임-강 찬형 신부) 신자일동-217,880원
 - 동정성모회 수녀원-500,000원
 - 이리 주현동 장 순용-200,000원

※앞으로 교구보 숲정이에 성지개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교구 성지개발위원회(교구청 관리국)에서는 여러분의 성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실 때는 직접 교구청 관리국에 내어 주시거나 우편대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편대체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천주교 전주교구 성지개발 위원회
400010-31-9030347

□ 주교님 출국

교구장 박 정일 주교님께서 지난 25일 오후 비행기편으로 출국하셨다. 주교님께서 해의교포신자들 200주년 경축대회와 로마 시성경축대회에 참석하시고 해의 유학중인 교구신부님들을 방문하신 후 10월 28일경 귀국하실 예정이다. 여행기간동안 주교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리자.

□ 제3기 혼인강좌

교구 교육국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젊은 남·여를 위한 제3기 혼인강좌를 마련하고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일 시 : 10월 6일~11월 3일(매 토요일) 오후 7시~9시
장 소 : 가톨릭 센터 3층
대 상 : 만 19세 이상 미혼 남·여(기혼자도 좋음)
준비물 : 필기도구, 성서 수강료 : 3,000원
특 전 : 혼인참고 면제, 수료증 수여

*프로그램

10. 6(토) : ①행복한 가정(남편, 아내의 역할)-범 석규 신부
②가정의학-안 득수(전북의대 교수)
10. 13(토) : ③가정공동체-이 주철(교육국) ④부부생활-M. E 부부
10. 20(토) : ⑤가정의 복음화-김 보나 수녀 ⑥혼인의 신비-문 규현 신부
10. 27(토)(기념촬영) : ⑦생명의 신비(영화) 인공유산과 여자의 결정권-행복한 가정 운동 ⑧빌링스 협약
11. 3(토) : ⑨혼인의 윤리-박 정일 주교 ※ 수료식 및 평가-교육국

요심이(582) 김병오



축! 결 혼

박삼순(안나)여사 4남
최 광 식(베드로)
이문구씨 차녀
이 정 순(로사)
주례: 김 진 소 신부
일시: 10. 7. (12시 30분)
장소: 노송성당

참신한 광고를 위한 나래 종합광고기획

* 각종 광고물, 포장디자인,
인, 기타 판촉물
군산시 대명동(시외버스
터미널 앞 2동)
☎ 3-6578
고 데레사(귀순)

순명동피부과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비뇨기과, 병리검사

원장 전문의 최 창 기(투까)
부설: 임상병리 검사실
임상병리사 임 운 자
☎ ③1719, ④0616 (원장실)
(구역전오거리, 팔달로동편 2층)

신속배달 설비시설
한국 가스 상사
☎ 3-1457-72-0612
김 성 두(토마스)
이 미 자(안젤라)

순종오골계분양
(약 닭)
천연기념물 제265호
병아리 800원, 큰닭 5,000원
전주시 효자동 구룡부락
⑥ 2944
정 주 은(도마)



1. 제17차 여성 꾸르실로: 10월 2일, 마나니파-4시 30분, 쾨라우슬라-6시
2. 푸른군대 특별 피정: 10월 4일(목)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노송동 성당, 대상-레지오 마리에·푸른군대·기사회원 및 일반신자, 준비물-미사준비·도시락·회비-1천원, 강사-김용배·하안도니오 신부
3. 사목방문: 5일-황동·용안본당, 6일-영등동본당
4. 성모기사회 연례 피정: 10월 6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전주 효자동성당 준비물-미사준비·도시락(회비 없음), 강사-오기순·김영일·박중신 신부님
5. 제16차 어린이들의 모후 소년부리아: 7일 오후 2시, 수류성당, 대상-각 프레스디움간부(이리·전주지구)
6. 제9회 레지오 마리에 연수회: 10월 13일 오후 2시~14일 오후 5시, 장소-센타 참석반위-레지오 단원, 참가비-7천원(4천원 푸리아 지원)
7. 제3지구 울뜨레아: 9월 30일 오후 2시, 장소-월명동성당

☆ 다음주 공지사항: 휴무 관계로 10월 2일(화)오전 까지 도착되어야 합니다

제1지구 각 분당 소식①

(중양)

전화 ①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나춘성
 사도 회장 김인협

1. 부활교리반: 10월 7일 개강, 9시
 2. 목자반 영세자: 10월 7일 공식미사 후 치명자산 참배 (도시락 지참)
 3. 각 신심단체: 10월 계획서 제출 요
 4. 병자봉성체: 10월 2일
 5. 제3기 혼인강좌: 10월 6일~11월 3일(매 토요일), 오후 7시~9시, 장소-센타 3층, 수강료-3천원
 6. 사도회: 10월 7일 공식미사 후
 7. 심심부녀회: 10월 5일 어머니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504, 296원 교무금: 654, 500원

(노송동)

신부 ①0969 주임 신부 김봉태
 수·사 ①7032 보좌 신부 이철우
 사도 회장 김수재

1. 축! 본당의 날 행사: 7일 오전 10시부터 (중앙여교) 1부행사-주보미사 및 영세식, 2부행사-경축대회
2. 대의원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불우한 이웃을 도우시다: 의류 및 가전제품 제출처-본당은 구관장에, 아파트는 제의실 책임자
4. 주일학교 성지순례: 3일, 천호공소, 회비-1천5백원
5. 켄모의: 매주 토요일 5시 교육관에서
6. 중·고등학생 교리: 매주 일 오후 5시
7. 인후아파트 교우 대상으로 성령세미나 개최: 10월 16일~19일(4일간), 선교부에 신청하세요
8. 성지순례(요셉회·성모회): 10월 9일, 신청하세요

(덕진)

신부 (3)2182 주임 신부 김동희
 전화 수녀 (72)1222 보좌 신부 양상열
 사부 (72)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모임 안내: 진부회-오늘 공식미사후, 까리따스회-10월 2일 오후 2시, 성심부녀회-10월 4일 오전 10시, 사도회 상임위원회-10월 6일 오후 3시
 2. 청년 예비신자 등산: 10월 1일(천복행사)
 3. 다음주 행사안내(예교) 주일학교(1지구) 체육대회-9일 해성학교
 4. 미사시간 변경(10월 1일부터) 새벽미사-6시(일~목), 저녁미사-7시(일~토)
 5. 그리스도상(척조) 및 103위 성인상(부조) 건립: (10월 7일 축성예정)-유수택·김진오씨가 봉헌
 6. 본당의 날 및 건진행사(11월 4일)를 위해 영세자와 각 단체 미리 준비 바랍니다
 7. 금주 분당참소: 중·고학생회(6일 오후 3시)
- 지난주 봉헌금: 142, 530원 교무금: 818, 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 신부 권영균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성원

1. 사도회: 오늘 저녁미사 후
2. 첫철례 ①: 10월 6일 저녁 7시30분
3. 목자부녀회: 10월 6일 오전 10시
4. 예비자교리: 10월 7일부터 시작(예비자 1분씩 안내)
5. 1지구 주일학교 체육대회: 10월 9일 해성학교에서
6. 분당 주보행사: 70세이상 어른들(71명)을 위한 미사 30일(오늘), 공식미사에 나오세요, 기념품 드림
7. 분당신부님 휴가: 10월 1~6일, 2일~5일 미사 없음
8. 축! 영명: 10월 3일 이만나 수녀님, 기도드립니다
9. 수재의연금 특별헌금: 오늘
10. 금주 주일: 10월 7일 특별헌금 있음
11. 금주 참소: 월-황금의궁전, 토-이땅에 빛이신모후 차주 참소: 월-사도의 모후, 토-자비의 모후

12. 금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이갑진 ②정동민 차주전례: 해설-최성순, 독서-①천진 ②이상인
- 지난주 봉헌금: 47, 040원 교무금: 157, 150원
 특별헌금(영세자): 13, 000원

(서학동)

신부 ①8307번 주임 신부 김동준
 수녀 ②2276번 사도 회장 김낙균

1. 모임: 자모회-10월 2일 오전 10시30분, 사도회-4일 오후 7시30분, 반장님 월례회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축!: 29일에 영세하신 형제자매님들 축하드립니다
3. 본당 내부·외부 수리에 다같이 참여합니다
4. 수녀님 피정: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 감사합니다: 백경애-이대 꽃대(10, 000원)
6. 다음주 전례: 해설-진영찬·문기욱, 독서-①박경환 ②박중순, 기도-사도의 모후Pr.

(술정이)

전화 ①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①9567 사도 회장 김수준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누깰다 부녀회 피정: 10월 9일(천호공소)
 3. 유아 영세식: 10월 13일 오후 2시(금주안 접수바람)
 ※ 10월 1일 미사없음
- ※ 분당신부님 영명축하식: 오늘 공식미사 후 다음주(10월 7일) 군인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4. 금주전례: 해설-이기호, 독서기도-정주복·이은자 차주전례: 해설-강원도, 독서기도-박해근·김정문

(전동)

신부 ①6208 주임 신부 김치양
 전화 사부 ①3222 보좌 신부 김상열
 수녀 ①8347 사도 회장 김병오

1.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30분
 2. 사도회·유아세례: 다음주
 3. 주일학교 성지순례: 10월 1일, 자모회 월례회 결합
 4. 청년 철야피정: 10월 2일 오후 8시~3일 아침 5시까지, 회비-1천원, 본당내 청년 전원 참석 바람
 5. L.M. 일일연수회: 9일 오전 10시~오후 5시 강당
 6. 셋빛 1000차 기념행: 30일 오후 2시, 선배님들 참관
 7. 성가정회: 10월 1일 오후 2시, 소강당에서
 8. 우리 본당 200주년 기념사업에 우리 모두 관심을...
 신일: 권성윤-30만원, 김치삼신부-50만원, 김병오-50만원, 김용옥-50만원, 김복윤-30만원, 김순남-10만원, 배양철-10만원, 배한주-20만원, 신일균-100만원, 안득수-50만원, 이종두-100만원, 이영분-20만원, 염두석-10만원, 임상영-10만원, 최병래-10만원, 민혜자-50만원, 오동춘-3만원, 오성순-2만원, 송은영-1만원, 익명-5만원, 김남주-5천원, 유복성-5천원, 서종남-5천원
 9.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주영, 독서-①최병래 ②최정식
 공식미사: 해설-이양자, 독서-①신일균 ②장금태
 저녁미사: 해설-고우희, 독서-①최종만 ②이훈
- 지난주 봉헌금: 424, 670원 교무금: 417, 500원

(호자동)

신부 75-3841 주임 신부 박중신
 수녀 2-4804 사도 회장 이교성
 사부 2-0915

1. 사목회의: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성모기사회 1일 피정: 10월 6일 10시~오후 4시
3. 유아세례: 오늘 10시
4. 사목방문: 거성아파트-10월 5일 오후
5. 성서연구: 수요일 저녁 8시, 토-오전 11시